

**제일합섬, PET 수축 필름 개발  
월 1백톤 기존 PVC라벨 대체가능**

자기용, 산업용 PET Base Film을 생산하는 제일합섬에서는 최근 PET BOTTLE용에 사용되는 PVC LABEL 대체품으로 PET BOTTLE과 동일 재질인 LABEL용 PET를 자체 개발했다.

기존에 사용하는 페트병은 간단해보이지만 무려 5가지나 되는 재질로 이루어져 몸체는 폴리에스터 즉 PET이며, 밑받침은 폴리에틸렌,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라벨은 PVC, 마개는 알루미늄 마개, 안쪽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등이다.

이중 재활용 할 수 있는 칩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몸체로써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1차 마개를 제거하고 다음에는 5~mm 크기로 자른 뒤 몸체를 제외한 것들은 기계나 손으로 골라낸다.

한가지 재질로 만들었을 때보다 3~4개 공병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PET병을 동일 재질로 했을 경우 기계설비와 가동 비용을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리수거시 비용도 3분의 1로 절감될 뿐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측면, 환경보전 측면에서 커다란 이점이 있다.

지난 5월 26일 이 회사는 PET병의 라벨용으로 쓰이는 환경보호용 PET 수축필름을 약 2년여 연구끝에 개발을 완료, 최근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주로 쓰이던 PVC라벨을 월 1백 t정도 이 PET수축 필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PET 수축필름은

단일재질 포장재여서 재활용이 쉽고 선명도가 개선돼 다색 인쇄가 가능한 특색도 지녔다는 것, 또 라벨 부착시 수축 정도가 우수해져 별다른 접착제가 필요없는 장점을 갖췄다.

**제일제당, 동경 테크니칼 센터 설립**

제일제당(대표 김정순)은 지난 4월 22일 일본 도쿄에 국내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히트 상품 및 초일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테크니칼 센터'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

김정호 사장 등 관계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에서 김사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은 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등 선진 다국적 기업의 거센 힘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쓰러질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나아가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동경 사장단 회의시 일본에 현지 테크니칼센터의 설립을 제창했다"고 말했다.

동경 테크니칼센터(센터장 박성흠 이사)는 총면적 1백여평으로서 사무실, 작업실, 무한탐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명의 주재원과 일본 전문가 3명을 채용하여 총 6명으로 출범하여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센터의 설립은 제일제당이 국내에서는 매출 규모로 볼때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선두주자이나 세계 초일류 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식생활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 설립되었으며, 제일제당은 본 테크니칼 센터 설립을 통하여 선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초일류 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술, 마케팅, 포장개발의 3개 부문에 걸쳐 각종 정보조사 업무와 분석연구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여 그 연구결과를 국내에서의 신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술부문에서는 ▲ 저칼로리 식품, 건강식품, 건강음료 등 식품업계 전반의 첨단기술 개발동향 및 기술입수, 분



제일제당은 지난 4월 22일 기술·마케팅·포장개발 분야에서 각종 선진정보 조사와 연구분석을 통해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쿄에 '테크니컬 센터'를 개소했다.

석 ▲ 초고압기술, 전기활용 기술, 기능성 식품소재, 물처리기술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정보 입수,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포장·디자인부문에서는 ▲ 조미료, 음료, 밀가루, 프리믹스, 설탕, 사료·유지 등 식품 전분야에 걸쳐서 포장디자인 선진화 10대 과제를 수립하여 새롭게 포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포장재질, 포장가공기술, 포장용기 급형, 포장기법, 포장디자인 경향조사 등 포장디자인 정보조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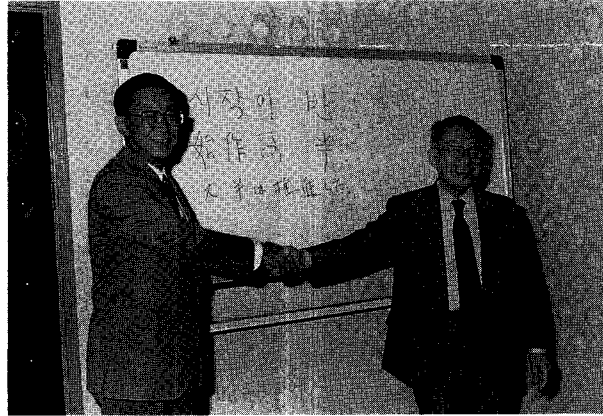
또한 제일제당은 이같은 동경 테크니칼센터 설립을 통해서 선진시장 및 제품 등에 직접 참여, 세계 흐름을 동시에 느끼고 배움으로써 제품개발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일본 포장학회 회장단 KIDP 방문 한·일 산업포장 교류 활성화 기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 유호민 원장은 6월 5일 오전 일본포장학회의 카토야 타가시(門屋 圭:가가와 대학 교수) 부회장 등 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한·일 산업포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일양국의 산업포장 발전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심포지움을 갖고,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 시스템 개발 및 포장설계 기법의 과학화·표준화 연구발표, 포장폐기물 대책 등 상호 보완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개발원(KIDP)은 6월 13일 포



지난 6월 5일 일본포장학회의 카토야 타가시 등 관계자들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방문, 유호민 원장과 양국간 산업포장 교류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장전문 연구원 3명을 일본포장학회에 파견, 일본의 포장 물류학회의 제반사업 등을 조사하고 한국포장학회 설립을 위한 준비와 심포지움의 주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 제12기 제품 디자인 보수 교육 제품개발을 위한 종합디자인 교육

산업디자인은 과학기술, 생산기술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축으로 이의 균형있는 발전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고급화와 부가 가치를 2배, 3배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기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산업디자인 관련 이론, 정보, 개발사례 등의 제품디자인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무디자이너 및 R&D 부문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은 물론 제품개발 부문간의 상호이해 및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SKC, 폴리에스터 수지 생산 연산 만2천t 수원공장 가동, 전량 수출

SKC(대표 최준식)가 페트병 등 고급 식품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수지 생산에 착수한다. 지난 5월 26일 이 회사는 수원공장에 35억을 투자 고상중합 설비를 갖추고 폴리에스터 수지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상중합이란 용융중합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지를 고체 상태에서 2차 중합하는 공정으로 이 공정을 거쳐 생산된 수지는 성형가공성과 투명성이 뛰어난 각종 식품 포장용기에 주로 사용된다.

1년간의 공사 끝에 이 설비를 완공한 SKC측은 연간 1만 2천t의 폴리에스터 수지를 생산, 전량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포장용 폴리에스터 수지의 국내 연간 수요는 11만t, 세계 수요는 2백 20만t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15%이상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유진, 3중필름 제조기 개발  
5억원 투입, 비닐하우스용 제작**

압출기 전문 제조업체인 유진엔지니어링(대표 김상영)은 농업용 및 공업용 광폭 필름을 생산하는 3중 필름제조기를 개발, 최근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 회사가 3년간 4억 8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국산화한 이 기계는 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작토록 특수 설계했으며 필름 표면의 형상이나 무늬를 완전제거, 보온 효과는 물론 태양광선 투과성을 증가, 농작물의 생산기간을 7~9일 정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필름 폭을 최대 5.5m까지 만들 수 있는 이 기계는 시간당 7백 kg의 생산량과 분당 50m의 생산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외화표시 대출 품목으로 지정된 이 기계는 현재 7대 정도 주문 제작하고 있으며 10여건의 주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고양에 공장을 둔 이 회사는 올 매출 목표를 50억원으로 잡고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판매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 9종 15개 품목 확정  
정부, 부과율 원안 보다 10~15% 낮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폐기물 부담금·예치금 부과대상과 요율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월 1일 환경처 등 관계당국 부처 실무자 회의에서 조정 결과 담배, 컵라면 등 용기형 라면과 1회용품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외키로 의

견이 모아졌던 종이저지귀는 부과 대상으로 다시 추가돼 최종 부담금 부과 대상은 9종 15품목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폐기물 관리기금 출연을 의무화해 연간 2백억원 정도를 폐기물 관리사업에 쓰기로 했다.

최종안에서는 폐기물 예치금도 환경처가 3월중 입법예고한 당초 품목에서 자동차 연축전지와 냉장고가 제외돼 5종 11품목으로 줄었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치금의 부과율을 현행보다 2배 가량 인상하려

는 계획이 백지화 되었으며, 부담금 부과율도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10~15% 수준으로 깎였다[표 참조].

특히 타이어의 경우 지금까지 예치금 부과대상에 빠져있던 신차용 타이어가 이번에 새로 포함돼 업계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현행 예치금보다도 최고 5%나 줄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예치금의 본래 취재를 살리기 위해 대당 예치금을 물리려던 것이 백지화돼 현재의 kg당 부과방식이 그대로 남게 됐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품목

종별 및 규격	최종조정안 (단위 원, 괄호안은 현행)
살충제 유독물용기 · 500ml 이하 · 500ml 초과 부탄가스용기	개당 5(20) 개당 11(30) 개당 6(10)
유리병 화장품 · 100ml 이하 · 100ml 초과 금속용기화장품 · 분사형 · 기타	개당 2(2) 개당 3(3) 개당 6(4) 개당 4(4)
과자제품 복합재료 용기류 · 3가지 이상 · 4가지 이상	개당 5(신설) 개당 10(신설)
전지류	개당 1.5(kg당 120)
부동액	ℓ 당 20(신설)
형광등	개당 5(신설)
껌	판매가의 0.25%(신설)
종이저지귀	개당 1(신설)
합성수지	판매가의 0.7% 폴리아세틸은 0.35% (변동없음)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

종별 및 규격	최종 조정안
종이팩 · 250ml 이하 · 250ml 초과	개당 0.2(0.2) 개당 0.4(0.4)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개당 2(2) 개당 4(4)
유리병 · 100ml 이하 · 350ml 이하 · 350ml 초과	개당 1.5(신설) 개당 2(2) 개당 3(3)
PET병 · 500ml 이하 · 350ml 이하 · 350ml 초과	개당 3(신설) 개당 5(신설) 개당 7(신설)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개당 100(100) 개당 50(50)
대형타이어 중·소형타이어 이륜차용타이어	개당 400(500) 개당 100(150) 개당 40(50)
윤활유	ℓ 당 20(20)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kg당 30(30) kg당 30(30) kg당 30(신설)

**국내 최대규모 압연공장건설 추진  
대한알루미늄, 일 경금속 기술도입**

대한알루미늄(대표 최동식)은 최근 일본 경금속과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울산공장에 연간 12만t 규모의 압연공장을 건설, 올해 안에 열연 냉연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알루미늄판 제수요는 연간 18만t 규모인데 비해 국내 공급량은 절반에도 못미쳐 이 공장이 완공되면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알루미늄은 이에 앞서 지난 89년부터 울산공장 12만평 부지에 모두 3천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압연공장 건설을 추진, 지난해 주조공장을 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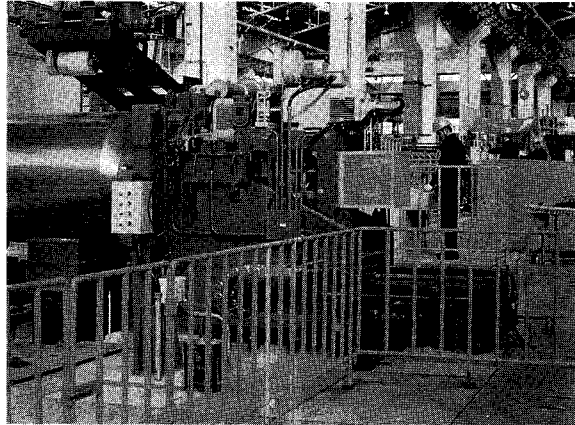
이 주조공장은 압연공장의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설비로 용해능력 15만t의 용해로 설비를 갖춰 지난해 12월 슬래브 생산을 시작했다.

한편 자동차 전기전자용 등 고급 소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판재는 지난해에만 10만t 2억 7천만달러 어치가 수입돼 사용됐다.

**코오롱, 수원에 물류센터 건립 추진  
5천평 대지 확보, 하반기 완공계획**

코오롱 그룹(회장 이동찬)이 수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지난 5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도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부지선정과 설계작업을 계속해 온 코오롱 그룹은 최근 수원시 원천동에 5천여평의 대지를 확보, 오는 6~7월중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계획을 확정



대한알루미늄은 최근 일본경금속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울산공장에 연간 12만톤 규모의 압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물류센터 건설에는 부지 외에 지상 3층 규모의 센터 건설 비용만은 1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림화학, 필름원료공장 이전  
PE·PP필름원료공장, 시화단지로**

농업용 필름 및 포장필름 제조 업체인 일신화학공업(회장 임오정)의 계열사인 미림화학은 최근 경기 오산의 PE 및 PP 필름제조 원료공장을 시화공단으로 확장 이전.

하루 3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대지 3천평 건평 1천평으로 지난해 10월 30억원을 투입했다.

**골판지상자 가공공장 건설계획  
한국수출포장, 연산 7천만㎡ 규모**

골판지 생산업체인 한국수출포장은 최근 1백 80억원을 투자, 경기도 안성군에 골판지상자 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세

워질 것이며 이곳에서는 연간 7천만㎡의 골판지상자를 생산할 예정.

이 회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합성수지류의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 새로 신규공장 건설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

**중기구조 조정기금 금리 인하  
중진단, 대출 8.4%서 7.0%로**

지난 6월 8일부터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의 대출금리가 8.4% 수준에서 7.0%로 낮아지고 지금까지 8개 사업으로 다기능화 돼 있는 중기 구조 조정사업이 3개 사업으로 단순화돼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 금융기관 창구에서 취급됐던 중기구조 조정기금이 지난 6월 8일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됨에 따라 수수료 등 간접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6월 4일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지원체제 개편'이란 자료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금리는 현재 8.4%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의 경우에도 7.7% 수준으로 인하돼 이용자는 연간 약 54억원(93년 기준)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사업도 현재의 8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통폐합돼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구조 조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스티로폴 재생공장 연내 건립  
EPS업계 압축장비 자체 비용으로**

스티로폴 등 상품 포장재인 EPS(발포 폴리스티렌) 제조업체가 환경오염물의 일종으로 가전제품 등 상품 포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폴의 수거에 본격 나서고 있다.

6월 8일 업계에 따르면 (주)럭키·한남화학·제일모직·효성바스프·동부화학·(주)신아등 EPS 메이커 6사와 중소 가공업체들은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스티로폴 등 상품 완충 포장재가 많이 쌓이는 백화점, 가전대리점 등지에 스티로폴을 현장에서 압축·회수하는 장비가 비치된 포장재 수거 코너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들 업계는 스티로폴 포장재가 쌓이는 전국 백화점 등 업소 7백곳에 스티로폴 압축 수거함을 오는 96년까지 설치키로 하고 우선 연내로 경인지역 및 충무 등 남해안 일대 20여 업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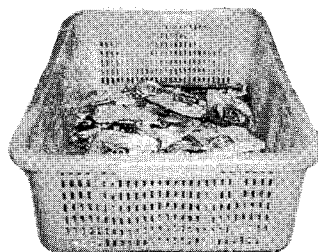
시범 비치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화공단 내에 스티로폴을 압축·분쇄·재가공하는 시범 재생공장을 연내 건립한다.

EPS업계의 스티로폴 수거함 설치 움직임은 작년말 미·일·독일 등 선진국들끼리 수입제품의 스티로폴 포장재를 수입국이 맡아서 압축·재생 등 서로 처리해주는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의 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국내 각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대응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이덕립)를 발족, 제품 t당 1만원(매출액의 0.1%)씩 출연, 시작 연도인 올해에 17억원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잡고 이달 들어 국산기계 업체에 수거 코너에 놓일 스티로폴 압축기계의 국산화를 의뢰했다.

**이두산업 개량 캔압축기  
(CAN MONEY) 개발  
시간당 약 2,000개 처리능력**

캔압축기 전문 생산업체인 이두산업(대표 이진환)이 기존 압축기인 캔모아의 성능을 개선한 캔압축기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의 특징은 캔마니가 자동으로 압착하여 알루미늄 캔과 스티로폼으로 정확하게 모을 수 있으며, 시간당 2000개의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휴게소, 종합운동장,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빈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한양화학, EPP 생산 참여**

한양화학(대표 박원배)이 완충 포장재로 사용되는 유화 신소재인 EPP(발포폴리프로필렌) 생산에 참여키로 했다.

한양화학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일본의 조연화학과 기술제휴를 통해 EPP 사업에 새로 진출키로 결정했다.



**대림산업, 국내 최초 무기 발포제  
플라스틱 마스터 배치 개발**  
92년초부터 약 4억원 투입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 정홍규)는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플라스틱 공해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품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지난해 11월 광분해성 플라스틱 마스터 배치 개발에 이어 국내 최초로 무기 발포제 플라스틱 마스터 배치 개발에도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 회사 대덕연구소 고분자연구실을 중심으로 지난 92년초부터 약 4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93년초 양질의 무기 발포제 M/B 생산에 성공하여 신제품 판매를 통한 가공업체의 응용시험을 마치고 국내에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국제 특허 출원도 준비 중에 있다.

‘대림포리 FAM-130’이라는 상표명으로 시판하게 될 무기발포제 마스터 배치는 발포제 함량이 5~15%에 이르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PE, PP 등 범용 수지에 무기 발포제 마스터 배치를 투입하여 제품의 충격강도 향상 및 수축방지 기능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포에 의한 가공제품의 경량화를 통하여 원재료 절감효과 및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주요 용도로는 팰리트 및 운반용 상자 등의 충격강도를 증대시켜주며, 전선 케이블의 절연기능 향상, 각종 건물 외벽의 단열재, 터널공사용 방수, 방음재, 자동차용 DOOR TRIM 및 SUN-

VISOR, 포장용 발포 SHEET 등의 기능 향상제로 사용된다.

**한솔제지, 국산 폐지 수집 적극지원  
납품대 현금결제, 협력사 해외견학 등**

한솔제지(대표 구정우)가 폐지수집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을 주선하고 이들 업체의 폐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등 국산 폐지의 수집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한솔제지는 국산 폐지 수집업체 대부분이 외국업체들보다 고지 분리수거 기법이 뒤져 있어 국산 폐지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내 처음으로 국산 폐지 수집 협력업체의 임직원 등 13명을 6월 1일부터 4일동안 일본으로 보내 일본의 우수 고지 수집업체 등을 견학토록 했다. 고지조합 및 협력업체 실무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견학단은 일본 체류기간 동안 동경에 있는 폐지 수집센터 및 모범 폐지수집업체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용융기 개발  
신호정밀, 동남아 등에 수출계획**

중소 플라스틱 분쇄 기업체들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자동진공 성형기 전문업체인 신호정밀은 2억원을 투자, 최근 페스티로폴 재생압축기를 비롯한 폐플라스틱 용융기

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페스티로폴 재생기를 생산한 이 회사는 최근 한남화학 등에 이 제품을 납품했으며 앞으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성기공은 최근 상공자원부의 국산화 개발 품목으로 고시된 이축분쇄기(모델명 ISS-10S)를 개발, 생산에 들어갔다.

9개월간 1억 2천만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대형 물체를 쉽고 고르게 분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조만간 리사이클 시스템까지 개발한 계획이다.

**플라스틱 가공기계류 수입 감소  
1/4분기중 대일수입 43% 줄어**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수입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4일 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입규모는 모두 6천1백56만달러에 불과, 지난해 같은 기간 1억7백97억만달러에 비해 4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동안 수입 의존도가 컸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사출기의 경우 전년도 5백90만달러였던 대일 수입 규모가 줄어들어서는 1백만달러 선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3% 이상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줄어들어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수입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불경기와 관련, 압출 및 사출업

체 등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신규설비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한편 지난 1/4 분기 중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수출 규모는 1천4백95만달러를 기록, 기년해 같은 기간 1천3백29만달러에 비해 12.5%가 늘어나 그동안 커다란 격차를 보여왔다.

**제일유리, 전자동공장 완공  
강화유리 수용증가 대비**

유리가공업체인 제일유리공업(대표 정형기)이 인천에 전자동 종합유리 가공공장을 완공, 지난 6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일반유리를 가공, 판유리 거울 강화유리 등 가공유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오디오 제품 및 주방가구에 소요되는 강화유리의 수요증가에 대비, 80억원을 들여 인천 남동공단에 연간 1천8백만평 규모의 가공유리 공장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공장규모가 1천5백만평에서 3천3백만평으로 1백50%나 늘어나게 됐다.

1년 2개월만에 준공된 이 공장은 대지 2천평 연건평 2천평 규모로 대형 강화로(2천3백 × 3천4백m)기와 절단기, 편취기 등 15대의 각종 가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유리는 이에 따라 기존 인천 간석동, 주안동에 있던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이전했으며 30억원을 투자, 1천평 규모의 접합라인 공장의 신축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종합유리 가공업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FA·환경설비 본격 진출  
두산기계, 외국 기술제휴 고부가 주력**

두산기계(대표 이병수)가 환경설비 FA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두산기계는 최근 자동판매기 시장 및 미곡처리 사업에 뛰어들어 이어 그룹 계열사의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소각로, 수처리 등 산업폐기물처리 설비와 로봇 및 FA기기 생산비중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두산기계는 앞으로 환경 관련 종합설비업체로 성장한다는 장기 계획을 마련,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비롯 자원재활용 설비 등 각종 환경 관련 산업설비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아울러 각종 가정용 및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소각설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G7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소각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네덜란드의 BSI사 및 일본 도요보사와 각각 기술제휴, 폐수처리와 용제회수 장치의 생산에 나

서고 있다.

두산기계는 또 공작기계 사업을 확대,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FA 물류설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유리조합, 중국에 시찰단 파견**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유리산업시찰단을 중국에 파견한다.

중국과의 기술합작투자 및 수출입 추진을 목적으로 파견될 이번 시찰단은 아성유리공업 등 14개사 15명으로 구성.

시찰단은 북경, 심양 등지의 유리공장 및 협회를 방문, 중국 유리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합작투자 업무를 협의할 것이다.

**국내 첫 TPU이용 시트·필름 개발  
진흥공업, 월 3백톤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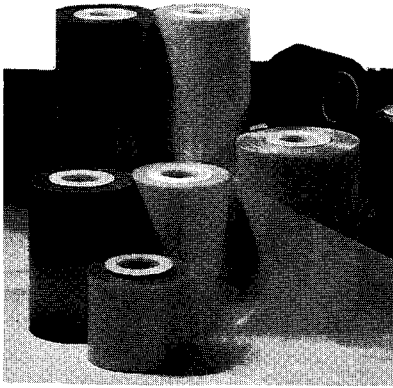
필름 전문업체인 진흥공업(대표 김기형)은 국내 최초로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를 이용한 시트와 필름을 개발, 최근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개발한 TPU는 분자구조 중 우레탄 구조를 가진 고무형태의 탄성 내마모성 내한성 난연성 고투명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께 0.03mm에서 10mm까지와 튜브형, 칼라형 등으로 다양한 모델을 갖춘 이 제품은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 내장재, 에어쿠션 물방석, 방탄유리, 컴퓨터기, 보드커버, 아이스팩, 의료용품 등 전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 회사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진흥공업의 PU를 이용해 만든 필름제품

대지 5천평에 연건평 1천2백여평 규모의 공장에 월 3백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 대림산업, PP증설공장 가동 개시 재생 용이, 색상발현 우수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 정홍규)는 전남 여천 공업단지에 위치한 여천 2 공장내에 연산 8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 개시하였다.

이 회사의 PP증설공장은 지난 1월 중순에 가동한 바 있는 PP공당의 CO-PY PLANT로써 작년 4월 착공하여 14개월만에 완공함으로써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였고, 기존 공장과의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갖추으로써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PP공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HIMONT사로부터 도입한 최신 공정으로서 일반적으로 폴리머공장들이 PELLET(제립) 제품 위주로 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이 회사의 PP공장은 팔렛트 제품 생산은 물론 제립공정을 거치지 않고 촉매와 첨가제 처방을 통해 선택적으로 ADDIFORM 제품을 생산하는 획기적인 제조공정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동사의 ADDIPOL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은 재생사용이 용이하며 색상 발현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 가공과정에서 원료와 에너지 소모를 줄여 생산원가를 현저하게 절감시켜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가공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대만 지합업계 시찰단 공식일정 마치고 귀국

대만 지합업계의 실태파악과 기술교류를 위해 지난 6월 10일 파견한 대만 지합업계 시찰단이 6월 13일 3박 4일 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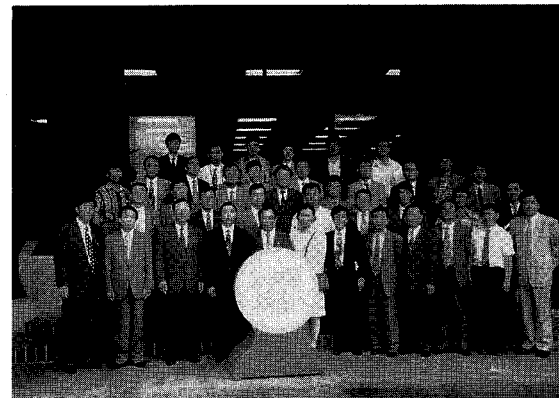
이번 시찰단은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 이대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업계대표 및 실무자 등 총 37명으로 구성, 파견하였으며 대만 紙器同業公會 林萬生 이사장의 영접으로 10일 산부지업유한공사의 방문을 시작으로 3개업체를 방문, 시찰하였다.

10일 산부를 방문한 이대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시찰단을 맞이하여 주신 대만 지합조합의 林萬生 이사장 및 업계 대표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합업에 종사하는 양국간의 실무자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林萬生 이사장은 “한국지합업계를 대표하여 대만을 방문하여 주신 한국 시찰단 여러분에게 감사와 함께 이번 교류를 통해 기술과 생산품의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정으로 상호방문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파견한 시찰단은 공장 견학뿐 아니라 4차례에 걸친 대만측 실무자와의 회담에서 양국 포장관련 사업에 관한 교류 및 기술지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양국 실무자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지합조합 관계자는 이번 방문 일정이 끝난후 시찰단의 자체평가회와 소감발표회를 통한 토의는 대만과 우리업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각 업체의 실무자의 참여가 두드러져 실질적인 기술협력교류가 가능했고, 업체 방문시 우리나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우리 시찰단의 방문에 대만 지합업계가 보여준 성의는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지합조합 이대길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 37명이 지난 6월 10~13일간 대만 지합업계를 시찰했다.